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즉시/제한없음
문의	연구처 연구정책과
	윤철진 전화: 880-5196, 이메일: mpinewoody@snu.ac.kr

배포일: 2022.9.1.(목)

서울대학교, 경기도-시흥시와 「글로벌 바이오 허브」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료·바이오 클러스터 조성, 세계보건기구(WHO)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 협력 등 “의료·바이오분야 혁신 선도 및 세계적 불평등 해소에 공헌”기대

- 서울대학교가 경기도, 시흥시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.
- 서울대학교는 2022년 9월 1일(목) 경기도, 시흥시와 ‘글로벌 의료-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하고, 경기 서부권 중심의 의료·바이오산업의 혁신적 성장환경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·바이오 허브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하겠다고 밝혔다.
- 이날 협약식에서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, 김동연 경기도지사, 임병택 시흥시장, 조정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하고,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, 서울대 이현숙 연구처장이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.
- 이 협약은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(WHO) 「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」 사업에 대한민국 단독 선정 이후 서울대-경기도-시흥시 간 협력체계를 통해 글

로벌 의료-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▲ 경기 서부권 의료·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▲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유치를 통한 바이오분야 글로벌 전문 인력양성 ▲ 국내외 의료·바이오기업 및 R&D센터 유치 및 바이오분야 창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키로 약속했다.
- 서울대학교는 「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」 사업 선정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‘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사업’ 유치를 위해 ‘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사업유치 추진단’을 구성하고, 국제백신연구소(IVI)와 함께 바이오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협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.
-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“우리나라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선정되며 의료-바이오산업의 선도국으로 진입하는 전기를 맞고 있다”고 하면서 “서울대학교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이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, 시흥시와 함께 의료-바이오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해 혁신을 선도하고 세계적 의료-바이오 불평등 해소에도 공헌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이 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세계 수준의 바이오 및 관련분야 교육·연구역량과 우수한 경기도, 시흥시의 바이오 산업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경기도와 시흥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의료-바이오 선도국으로 진입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